

정부 "日 오염수 해양방출 강한 유감...필요한 모든 조치 할 것"

"국민 안전 최우선 원칙 대처...건강 위해 끼칠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수용 불가"
"오염수 처리과정 정보공개해야...IAEA 등 국제사회에 객관적 검증 요청"

정부는 13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연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를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

했다.
특히,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는 동시에 객관적 검증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구 실장은 "국제검증을 통하거나 한국의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배상이나 중단 요구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과학적·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해역에 방사능 유입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함께 원산지 단속을 보다 철저하게 이행·점검하기로 했다.
또 방사성 물질 해양확산 평가, 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철저히 예측하고 분석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검토하겠



다고 발표한 지난 2018년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합동 TF를 구성,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비해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

[칼럼] 알고도 먹고 모르고도 먹는 사약



박영준

역사 드라마를 보면 간혹 유배된 죄인이 마당에 앉아 소반위에 사약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공골 방향으로 절을 하고 쓸쓸히 부는 바람을 맞이하며 온갖 품을 잡은 후 조용히 약사발을 들이키다 킁! 하고 쓰러지는 것으로 끝이 나는 장면이다.
사람을 사망케 하는 독극물은 이처럼 다량을 한 번에 먹는 것도 있지만 서서히 시간을 두고 온갖 산해진미에 숨어 장기간으로 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가까이는 술·담배도 그렇겠지만 유전자 조작 식품도 그러하고 환경호르몬이 넘치는 스티로폼 용기와 인공 감미료도 그러하다. 뿐이아 각종 미세먼지와 비위생적인 조리과정도 문제이며 유통기한을 넘긴 식자재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서서히 몸이 병들어 가는 과정에 알고도 먹고 모르고도 먹는 사약이 도처에 넘친다. 약 20년 전 경기도 안산과 시흥·화성을 끼고 조성된 시화방조제는 대부도를 육지로 만들었고 해수면과 내수면으로 분리됐다.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는 일부 물리적 약제들의 무단 방류로 시화호는 점차 검은 색으로 변했으며 언론에서는 인류가 만든 재앙으로 명명했다.
항공활영까지 동원되어 비교된 내·해수면의 차이는 결국 해수면으로 방류하면서 맑아졌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맑아진 게 아니라 최악의 오염도를 나타낸 공장폐수를 천혜의 갯벌이 조성된 서해로 통하는 감문을 열었다 단았다 하며 방류했다.
앞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미처 처리되지 못한 시커먼 폐수가 시화방조제 인근 바다로 파이프를 연결해 수시로 방류했던 시절도 있었다.
필자가 당시 경비행기를 이용해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본 당시 장면은 푸른 바다 위에 작은 점 하나가 생겼더니 점차 원을 그리며 커진다.
그리고 그 시커먼 폐수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고 다시 점이 생겼다가 반복한다. 한마디로 미친 것이었다.
시화호에는 오염물질의 먹이사슬이 구성된 탓에 어획 행위가 금지되었지만 천적이 없었던 숨어 때들은 갈수록 풍어를 기록했다.
당시 일본의 폐광에서 발생한 폐수로 인해 이타다이아이드(카드뮴 중독)에 대해 심층 취재한바 한국의 시화호에서도 유사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판단으로 어획 행위의 현장을 급습하여 잡은 물고기의 일부를 구입했다.
활어횟집에서 회를 뜨는 과정에 살집마다 기름 냄새가 풍겼지만 당연한 듯, 원래 그런 듯, 맛있게 먹는 시민들의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다.
서해안 중심의 관광지나 횟집을 다녀보았지만 이 같은 역겨움은 대부분 유사했고 특집 기사로 보도된 이후 방송 전파를 타자 횟집 중심의 파급효과는 과격적이었다.
"영양이 안 된다"며 회를 뜨겠다는 협박과 함께 인체에 해롭다는 증거를 대라고 난리가 났다.
"당장 먹고 죽어야 되나"며 살점을 코앞에 내밀어 시름한 기름 냄새를 맡게 한 뒤에야 조용해졌다.
공장폐수를 먹고 자란 플랑크톤, 그걸 먹고 사는 치어와 치어를 먹고 사는 어류들이 포획되어 인체에 온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개발기간, 8개월→2개월 내로 단축

방역당국 "학교, 마스크 미착용이 가장 큰 코로나 전파 원인"

자가검사지침 마련 및 임상검체 확보 지원...방역제품 적기 공급

학교·학원 집단감염 환자 증가...등교 전 반드시 '건강상태 자가진단 어플' 입력 12일부터 보건교사 등 예방접종 시작...집단면역 형성 전까지 방역준수는 의무"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2일 "통상 8개월이 소요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개발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가검사키트의 개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가검사지침을 마련하고, 허가신청 전부터 전담심사자가 검토·자문하며 생활치료센터와 임상기관을 연계해 임상검체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제품이 개발될 때까지는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받은 제품 중 해외에서 긴급사용 등으로 개인이 사용한 정보와 자료가 있는 제품을 평가해 국내 임상자료 제출을 조건부로 허가하는 등 검사체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백신·치료제·자가검사키트 인허가 지원 등 도입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김 처장은 "국내 개발 백신의 3상 임상을 총력 지원하고, 해외 백신의 허가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량생산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국내 백신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백신 플랫폼 생산기술과 시험법을 확립하는 등 생산·품질관리에 대한 기술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노바백스 백신 등 도입 예정인 해외 백신 업체에서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사전검토

등으로 신속하게 허가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단기간 개발로 임상 근거가 부족해 고령자, 심혈관, 호흡기, 당뇨, 고혈압 환자로 사용범위가 제한적인 국산 항체치료제 '벡키로나주'는 3상 임상시험 대상 범위가 심장질환, 암 등 면역저하 및 비만 환자까지 확대 되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위급환자에 대한 치료목적 사용 승인 시 행정절차를 단축해 코로나 환자의 적기 치료를 지원하는 등 국산 항체치료제의 허가범위 확대와 해외개발 치료제의 조기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해외개발 중인 치료제가 국내에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독성정보, 초기임상 정보 등을 미리 검토하고 사전상담 등으로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자가검사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역상황 변화에 맞추어 자가검사키트의 신속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가검사 지침 마련은 물론 허가신청 전부터 전담심사자의 검토·자문, 생활치료센터와 임상기관의 연계를 통한 임상검체 확보 지원 등으로 대략 8개월이 소요되는 제품 개발 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한다.
김 처장은 "백신·치료제·자가검사키트 제품의 철저한 허가·심사를 통해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적기에 방역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3일 "4월 초 대전 동구 학원에서 3개 고등학교와 3개 학원을 중심으로 97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학원과 학교 관련 유행이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 단장은 "자가검사 키트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전파의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또한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 미흡과 공용공간 내 음식 섭취 등이 위험요인으로 평가됐다.
이에 학교에서는 학내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지도를 더욱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단장은 학원과 학교 관련 감염 전파를 언급하며 "이들 사례에서의 안타까운 점은 증상 발생 이후에도 출근이나 등교를 지속한 점, 그리고 증상 발생부터 확진까지 수일이 지연돼 감염위험이 함께 높아진 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학원과 학교에서 1차 전과된 후 가족, 지인, 타 학교와 학원 학생까지 n차 전과가 발생했다"면서 "증상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분들께서는 등교와 등원을 멈추고 즉시 검사를 받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들은 등교 전 증상 여부를 면밀히 살펴 '건강상태 자가진단 어플(APP)'에 건강 상태 입력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3주간 학령기 연령의 확진율이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학교와 학원에서의 집단발생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안전한 학교생활과 나와 친구,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단장은 "학생들 또한 실내활동 중 마스크를 올바른 방식으로 철저히 착용하고, 수시로 손을 씻고 손소독제 사용도 일상화해 개인방역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와 학원 선생님과 관리자분들은 교실은 자주 환기하고 소독하며, 학생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12일부터 학교의 보건교사와 특수교육, 보육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작됐다"며 "이를 전기로 학교와 학원에서의 발생도 줄어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충분한 예방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이 형성되기까지 방역수칙 준수는 모두를 위한 협력의 의무로 생각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단장은 "자가검사 키트는 정확도가 낮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검체 채취의 편의성을 높여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는 보조적 수단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확도에 대한 평가가 있는 자가검사 키트의 검토와 허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비용 대비 효과의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자가검사 키트는 분명히 편리하지만 한편으로는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당초의 목적에 맞는 사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한식기자

정동희기자

이용호 의원, '결핵퇴치법' 대표발의!

결핵 검진을 전 국민 생애주기별로 실시하는 등의 법적 근거 마련

앞으로 결핵예방접종을 한 사람도 생애주기별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결핵 퇴치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9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결핵예방접종자에게 피부반응검사 등의 방법으로 생애주기별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핵퇴치법」(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핵은 BCG 예방 백신과 결핵약이 나오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잊혀진 질병이다. 그러나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은 25번째 연속 OECD 회원국 중 결핵발병률 1위 국가이며, 매일 65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5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결핵검진을 하더라도 실제 발병으로 나타나지 않는 잠복결핵에 대한 검사방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현재는 결핵검진



의무대상자에 대해서 해당 기관 소속 기간 중 잠복결핵검진검진을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결핵 발병률이 가장 높은 배경에는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의무대상자에 한정해서 결핵 감염여부를 관리할 것이 아니라, 결핵예방접종자 전반에 대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결핵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연평균 환

자 수는 2,753명씩, 신규 환자 수는 2,180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핵 전체환자 수와 신규환자 수가 각각 25,350명, 19,933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뒤에는 결핵환자가 0명에 가까워질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결핵예방접종 이후 결핵검진을 생애주기별로 실시하고, 피부반응검사 등의 검사방식으로 잠복 결핵을 걸러낼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이 결핵발병률 1위 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나고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남출/기자

대구시, 지방분권 기반으로 전국 모범된다

제5기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가 4월 12일 오후 3시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날 대구 지역 각계 리더 34인으로 구성된 분권협의회 위원들은 위촉장을 받고 첫 번째 본회의도 개최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출범식에 참석해 새롭게 출발하는 제5기 지방분권협의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한다.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2011년 분권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한 이래 10주년 되었다. 대구시가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지방분권 교육과 홍보 사업 등 지방분권 추진 경험들은 전국의 모범이 되고 있다.

34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방분권협의회는 앞으로 ▶지방분권 촉

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 지방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활동에 관해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5기 분권협의회는 지난 4기에 비해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지방분권홍보단 출신의 대학생 2명을 협의회 위원으로 영입하는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고민을 했다.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5기 의장 및 분과위원장 등 임원선출과 2021년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추진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

올해 지방분권 추진계획(안)에는 ‘우리 삶을 바꿀 자치분권 실현으

로 시민행복 달성’이라는 비전 아래, ‘대한민국 분권 선도도시, 대구!’를 목표로 ▶실질적 지방분권 추진기반 강화 분야 4개 과제, ▶지방분권 시민 참여 및 교육·홍보 강화 분야 7개 과제, ▶지방분권 역량 결집 및 확산 분야 3개 과제로 3대 분야 14개 추진과제가 담겨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 정책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역사에는 시대마다 주어진 소명과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분권 대한민국으로 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역사적 소명이고 과제”라고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궁영기/기자

전국 폐교 32% 이상 미사용·학교림 방치...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강득구 의원, “교육부-시도교육청 폐교 컨트롤타워 구축하여 지역 상생 모델 마련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1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방치된 폐교 409곳, 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폐교 사용실태별 현황과 향후 사용계획, 임대 폐교 점검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폐교 4,793필지 중 1,549필지(32.3%)가 미사용·학교림 상태였고, 2,866필지(59.8%)는 경작지·도로·주택부지·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용·학교림 상태인 폐교는 지역별로 경북 355필지(35.6%), 강원 323필지(43.0%), 경남 318필지(46.4%), 전남 207필지(29.0%), 경기 103필지(22.0%), 충남 97필지(54.8%), 부산 68필지(91.9%), 인천 24필지(49.0%), 전북 18필지(8.9%), 제주 15필지(16.3%), 충북 13필지(2.5%), 울산 5필지(33.0%), 세종 2필지(50.0%), 광주 1필지(3.9%)였다. 반면 서울, 대전, 대구는 미사용·학교림 상태인 폐교가 없었고, 폐교를 교육용 시설이나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등으로도 활용하고 있었다.

폐교 활용에 대해서는 ‘자체 활용’이 4,262필지 중 810필지(19%)에 불과했고, ‘대부(2,086필지, 48.9%)’와 ‘매각(918필지, 21.5%)’이 가장 컸다. 서울은 폐교 2필지 중 2필지를 모두 자체활용할 계획이지만, 경남의 경우에는 폐교 686필지 중 22.3%인 153필지를 매각 하고 71.9%인 493필지를 대부할 계획이다. 또한, 폐교를 학생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필지를 모두 자체활용할 계획이지만, 경남의 경우에는 폐교 686필지 중 22.3%인 153필지를 매각 하고 71.9%인 493필지를 대부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은 폐교 216필지 중 91%인 197필지를 매각하고, 5%인 10필지를 대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한 폐교에 대한 현장점검 현황은 울산의 경우, 월 1회 정기적으로 임대한 폐교에 나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에는 연 2회 현장점검을 했을 뿐이고, 인천, 전남, 충북 등에서는 현장점검이 2020년을 거치며 한 번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3월 방문판매업체가 인천 강화도의 한 폐교를 10년째 속소로 무단사용하고 그 안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도 폐교 관리가 부재했기 때문”이라

고 지적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및 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폐교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많은 시도교육청이 폐교 매각·대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폐교를 학생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부/기자



전국 폐교 32% 이상 미사용·학교림 방치...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1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방치된 폐교 409곳, 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폐교 사용실태별 현황과 향후 사용계획, 임대 폐교 점검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폐교 4,793필지 중 1,549필지(32.3%)가 미사용·학교림 상태였고, 2,866필지(59.8%)는 경작지·도로·주택부지·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용·학교림 상태인 폐교는 지역별로 경북 355필지(35.6%), 강원 323필지(43.0%), 경남 318필지(46.4%), 전남 207필지(29.0%), 경기 103필지(22.0%), 충남 97필지(54.8%), 부산 68필지(91.9%), 인천 24필지(49.0%), 전북 18필지(8.9%), 제주 15필지

(16.3%), 충북 13필지(2.5%), 울산 5필지(33.0%), 세종 2필지(50.0%), 광주 1필지(3.9%)였다. 반면 서울, 대전, 대구는 미사용·학교림 상태인 폐교가 없었고, 폐교를 교육용 시설이나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등으로도 활용하고 있었다.

폐교 활용에 대해서는 ‘자체 활용’이 4,262필지 중 810필지(19%)에 불과했고, ‘대부(2,086필지, 48.9%)’와 ‘매각(918필지, 21.5%)’이 가장 컸다. 서울은 폐교 2필지 중 2필지를 모두 자체활용할 계획이지만, 경남의 경우에는 폐교 686필지 중 22.3%인 153필지를 매각 하고 71.9%인 493필지를 대부할 계획이다. 또한, 폐교를 학생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한 폐교에 대한 현장점검 현황은 울산의 경우, 월 1회 정기적으로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 가50146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편집국: 02)2612-2959 팩스: 02)2060-4147 구독신청, 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도민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회가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동작구, 담배꽂초 무단투기와의 전쟁...전용 쓰레기통 설치

주민·민간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노량진 일대 고시원·상가 밀집지역에 17개 설치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하루 1,200만 개비 정도의 담배꽂초가 길거리에 버려지고, 이렇게 버려진 담배꽂초는 비와 바람 등에 하수구나 빗물받이로 유입된 후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바다로 흘러간다.

이에 동작구가 지난 9일 흡연과 담배꽂초 무단투기가 빈번한 지역에 '담배꽂초 전용 쓰레기통' 17개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2월 고시원연합회 및 상가연합회 등 민간단체의 의견을 듣고,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해 고시원, 음식점, 학원, 편의시설 등이 밀집한 노량진 단양로 일대 17개소를 설치장소로 결정했다.

설치된 전용 쓰레기통은 30cm×25cm×100cm 크기이며, 주황색으로 제작되어 도시미관을 밝게 하고 야간에도 눈에 띄도록 했다.

특히, 꽂초 투입구는 일반쓰레기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 케이스가 들어갈 정도의 간격으로 만들었으며, 하부 사각받침대는 콘크리트로 속을 채워 바람이나 취객에 의한 쓰러짐을 방지했다.

아울러, 빗물이 유입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상부에는 담배꽂초 전용 쓰레기통 알림문구와 무단투기 경고문, 전면부에는 꽂초의 무단투기 근절과 건강생활 문화를 알리는 재미있는 문구와 이모티콘이 삽입됐다.

노량진에서 임용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임**(30.남)은 "아무렇게나 버려진 담배꽂초 때문에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졌었다. 더 많은 담배꽂초 전용 쓰레기통이 설치돼 깨끗한 길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생각을 전했다.

구는 쓰레기통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인근의 음식점·고시원 대표자를 책임자로 지정해 관리하

며, 쓰레기통 주변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동주민센터와 무단투기단속원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순찰한다.

최승백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사업 추진으로 담배꽂초 무단투기 예방을 통해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꼼꼼한 청소행정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해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달까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상도동, 사당동, 대방동, 신대방1동 등 무단투기 상습지역 13개소에 이동형 CCTV 13대를 설치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사물인터넷 기반의 말하는 이동형 CCTV는 바퀴가 부착되어 있어 여러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단투기자가 센서에 감지되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로 안내·경고한다.



최만식/기자

시흥시, 불법 주정차 방지 및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 3배 부과"

시흥시는 도로 위 교통흐름과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를 2배에서 3배로 변경해 부과할 예정이다.

전국 각 지자체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등에 따라 도로 위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안전을 침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들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전 국민이 인식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는 기존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변경된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위 기준은 실제 어린이 활동 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에만 적용된다. 그 외 시간

(평일 오전 8시 전 및 오후 8시 이후, 주말,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은 금액(4만원)으로 부과된다.

시흥시는 위 기준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CCTV 등을 설치·보완하는 사업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운영 중인 주정차 단속 CCTV 총 121개소 중 61개소가 최근 3년 이내에 설치된 것으로 50만 대도시에 맞게 주민 생활 불편을 줄이는 스마트 자동단속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단속을 지양하고 장소, 상황별 특성을 고려한 단속을 실시해 어린이 안전도 챙기고, 주민 편의도 높일 수 있도록 주정차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 시민 모두가 동참해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 3배 부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방지 및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과태료를 2배에서 3배로 변경하여 부과(「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국 동시 시행)

시행일: 2021. 5. 11.부터

적용대상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단속된 차량

적용기간 평일 08:00-20:00 (평일 적용시간 외, 주말 등은 1배 부과)

유의사항

-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장 등이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이면 적용
- 주민신고(「안전신고」 앱) 견에도 동일하게 적용

과태료 금액 변경내용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6), (별표7)

구분	승용자동차 등(승합자동차 등)	
	변경 전 (2021.5.10.까지)	변경 후 (2021.5.11.부터)
일반	4만원(5만원)	4만원(5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 시간 4만원(5만원)	4만원(5만원)
	평일 08:00-20:00 8만원(9만원)	12만원(13만원)

SHANGHAI CITY NA 시흥시 교통행정과

속초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집중계도 실시

속초시는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집중계도를 실시한다.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사업 취지와 위반시 신고 방법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함으로써 주차 편의와 이동 편의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받는 공간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 한 경우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어플을 통해 어느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적발 시 불법 주·정차 10만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속초시는 지난해 1,196건의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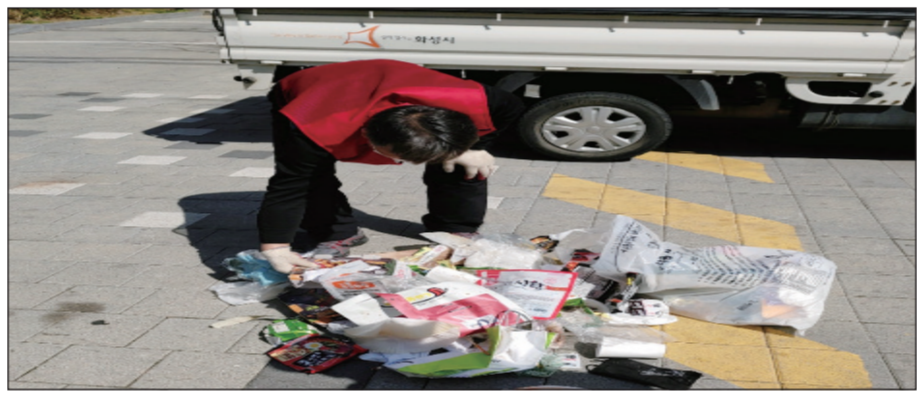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계도를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누군가에게 절실한 공간이 내 가족을 위한 공간일 수도 있다는 의식으로 속초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재은/기자



화성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 집중단속

이달부터 11월까지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



화성시가 이달부터 쓰레기처리 감시원과 함께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화성시민 16명으로 구성된 감시원은 소각과 무단투기, 매립 등 쓰레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청소관리와 주민 홍보활동 등을 담당하는 역할이다.

시는 봄철 행락지와 화성호, 남양호 등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 곳을 중심으로 점검을 시작해 올 11월 말까지 주요 도로, 시가지까지 활동 반경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

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강석 자원순환과장은 "시민들께서는 나 하나야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 나 하나의 참여가 환경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생활쓰레기 불법처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국화도에서 환경감시원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환경정화활동을 펼쳐 지난 겨울 발생한 생활폐기물 7톤을 수거했다.

김남주/기자

사용이 편리한

「나주사랑카드」 상품권 출시



- ▶ 발행시기 : '20.9.1.부터
- ▶ 카드신청 - 한국조폐공사 앱(chak)
- ▶ 충전한도 : 월 70만원
- ▶ 좋은점 - 사용자에게 10% 할인
-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 발행종류 : 충전식카드
- 관내 농협 방문
-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직장인 소득공제 30%
- ☎ 339-8822
- ※ 스마트폰, 신분증, 계좌번호
-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휴대폰에서 충전가능 등

가평군,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4개 기관 신청

가평군이 고심 끝에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4개 기관을 신청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군에 따르면 이날 접수 마감 날인 3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공모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4개 기관을 유치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접수된 유치 신청지에 대해서는 이달 중 1차 서류 및 현장 실사를 거쳐 다음달 2차 PT심사 후, 선정할 계획이다.

군이 유치하고자 하는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인구 6만3380여명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중 26.1%인 1만6324명으로 이미 초고령 사회이며, 장애인은 8.2%인 5213명으로 요보호대상자가 타 시·군에 비해 최고 수준에 있어 반드시 유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가족 전문기관이 전무함에 따라 여성가족재단 유치시 성 평등 정책에 대한 전문과 체계적인 교육 및 사업추진연계 시 성평등 의식·문화 개선은 최소의 시간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깨끗한 물을 기반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 면적을 경기도 최다 지역인 군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자연·관광 토대로 농수산 분야 시너지 극대화를 이끌 수 있는 발전 가능한 최적지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군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주요사업인 창업 및 벤처지원, 중소기업성장지원, 수출 및 마케팅 지원, 4차 산업혁신선도, 바이오 및 산업육성, 기업·과학기술 정책개발 등과 연계, 신규산업단지를 6만㎡ 규모로 조성할 계획도 내놴다.

앞서 경기도는 금년 2월 경기 북·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 7곳의 추가 이전을 추진키로 발표한바 있다.

이전대상은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으로 근무자수는 총 1100여명에 이른다.

최만식기자



광명시, 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재)광명시청소년재단(이사장 박승원)은 10일 광명시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이 자율적 시민으로서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인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박승원 광명시장인 좌장이 되어 이끌었다.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인 전민경 위원이 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정책과제에 대한 발표에 이어 광명시청소년참여위원회 박수진, 소하중학교 운영위원장 최윤선, 광명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원 이형덕, 운산고등학교 교장 홍진호, 광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 정인애,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이사장 전성민 등이 참여하여 청소년 기본권에 대해 공론의 장을 펼쳤다.

전민경 연구위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체계적 현황 파악과 빅데이터 구축마련,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 체계구축, 중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지정토론에서는 ▲청소년이 삶의 주체로 자신의 권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조성, ▲청소년



광명시청소년재단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촘촘한 정책과 실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지방자치 민관의 협력 ▲청소년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차별, 청소년이기 때문에 받는 간섭정도도 문제로 인식 ▲일상생활에서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합 패러다임’으로의 사회적 합의 등이 논의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오늘 이 자리는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 정책마련을 앞두고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정책을 추진

함에 있어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공론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청소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광명시는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도시, 청소년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이어 참석자들은 ‘광명시 청소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응원하자’라는 의미로 ‘청소년 기본권 리스펙’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순희기자

안양시, '2021 평생학습 재능기부사업, 학습 재능기부강좌 운영'

안양시가 평생학습에 기여할 학습재능기부 강사를 모집한다.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5월 10일까지다.(포스터 첨부)

‘학습 재능기부’란 자신의 재주와 능력을 이웃과 지역사회에 강의형태로 기부하는 자발적인 실천 활동이다. 재능기부강사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활용해 시민에게 평생학습이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화상강의가 가능해야 한다는 한시적인 조건이 생겼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강의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안양시민이면 참여가능 하다.

대중적 접근이 용이한 인문교육과 문화예술 등이 주요 모집분야다.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안양시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2018년에 실시한 ‘캘리그래피’강좌가 2019년 비산종합사회복지관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됐고, ‘쌀디저트 홈베이킹’, ‘내 손으로 만드는 상미약과 천연염료’ 등은 수강생들 인기속 평생교육원의 학습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듯 재능기부를 통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수강생들의 높은 만족도와 추가 요청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알찬 재능을 보유한 시민들의 많은 기부를 바란다면, 재능기부 강사들에 대해서는 경력증명서 발급과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 주고, 표창장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연중 언제라도 재능기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종균기자

2021년도 안양시 평생학습 재능기부사업 모집 안내

집중모집 4. 20. ~ 5. 10. (21일간) 수시모집 연중 (온라인 신청)

학습 재능기부 강사 모집

모집분야 인문교육, 문화예술 등 평생학습 분야
 모집대상 재능기부로 강의가 가능한 안양시민 누구나
 ※ Zoom 등 화상강의가 가능한 자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한시적 조건)
 신청방법 온라인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 평생교육사업 > 학습 재능기부 > 강사 등록
 강사예매
 • 강의활동확인서 (경력증명서) 발급
 • 강의시간은 자원봉사시간으로 인정
 • 표창장 수여
 ※ 학습 재능기부강좌 운영계획 : 2021. 5 - 12월

학습 재능기부 기관 모집

모집대상 강좌 지원이 필요한 기관(장소 제공 가능하여야 함)
 신청방법 온라인, 유선, 방문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 평생교육사업 > 학습 재능기부 > 희망강좌 등록
 기관예매
 • 학습 재능기부로 강좌 개설 (단, 교재 및 재료비, 실습비 등 학습자 부담)
 • 희망하는 강사 인계로 기관의 운영분야 확대
 • 지역주민에게 홍보 효과

안양시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 ☎ 031-8045-6012, 6017
 learning@anyang.go.kr

광주시, 예총 '경제과학진흥원 유치' 기원 퍼포먼스

광주시 예총은 지난 10일 광주시청 다목적 광장에서 무용, 연극, 연예지부 등 9개 지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치기원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날 유치기원 퍼포먼스는 광주시 예총소속 연극협회 전문 배우들이 조선시대 복장차림을 하고 예총 사물놀이 '공존' 팀과 함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주시 유치 기원의 길을 여는 사물놀이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이어 무용협회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치를 기원하는 춤인 '장검무'를 추며 유치를 기원했다.

아울러 색소폰 연주와 연예협회 난타 팀의 연주 등 2천100여명 광주시 예술인들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치를 희망하는 염원을 담아 신명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상우 광주시 예총회장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반드시



광주시에 유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신동현 시장은 “광주시 문화예술인들께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치를 힘에 모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꼭 유치를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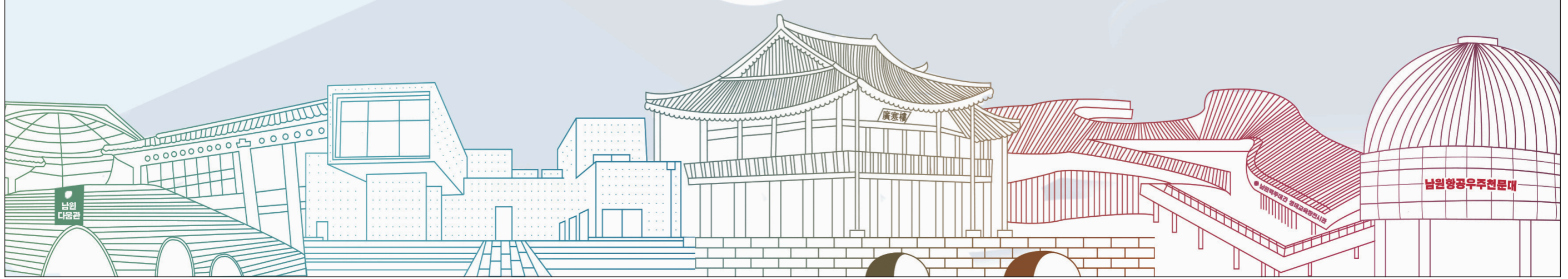
공해 시민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모인 예총 회원들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광주시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도 함께 실시했다.

최근수기자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관광·문화도시 그 품격을 더욱 높혀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이재명도지사, “제주 43 같은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해야”

4월 10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제주 4·3 제73주기 추념 '봄이 왔수다' 개막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낸 세금으로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국가폭력의 대표적 사례가 제주 4·3”이라며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오후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제주 4·3 제73주기 추념 '봄이 왔수다' 개막식' 개최사를 통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보다 한참 전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국가폭력에 의해 사라졌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에 제주 4·3 특별법이 전면 개정됐다”며 “이러한 법적 조치나 보상, 배상, 명예회복,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국가폭력에 의해 개인의 생명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폭력을 고의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시효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시효를 폐지해야 국가폭력을 국민 대신 행사하는 공직자들이 그 권력 행사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인권 침해에 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 4·3 제73주기 추념 '봄이 왔수다' 제주 4·3 제73주기를 맞아 희생된 제주도민을 추모하기

위해 (사)제주 4·3 범국민위원회와 경기도, 수원시, 경기아트센터가 마련한 공연과 전시회다.

개막식에는 이재명 지사, 오임중 제주4·3 희생자 유족회장을 비롯한 유가족, 김승원 국회의원, 박근철·최만식·김경희 경기도의원, 김희현 의원을 포함해 제주도의원 9명, 정연순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 양호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허운 스님, 김원준 경기남부경찰

청 장, 이우종 경기아트센터 사장 등이 참석했다.

개막식이 열린 10일에는 이번 추념 행사의 일환으로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제주4·3평화합창단 등이 제주 대표곡 '이어도사나', '사데소리' 등을 공연했다. 오는 17일까지는 경기아트센터 갤러리에서 도자기, 설치 미술 등을 선보이는 '제주 4·3 스토리텔링 전시회'가 열린다.

한편 제주 4·3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1만4,000여명의 제주도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지난 3월 제주 4·3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의 단초가 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및 위자료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수기자

안산시, 이수정 교수의 마음건강강좌 유튜브 생중계

안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유튜브 시민강좌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23일 오후 7시30분에 진행되는 마음건강 시민강좌는 '그것이 알고싶다' 등 다수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가 강의를 맡아 안산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강의는 '범죄심리학자가 본 코로나19와 정신건강, 그것이 알고싶다'를 주제로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범죄 양상과 범죄자들의 심리 ▲비정신질환자들의 높은 범죄율과 정신

질환자 편견 해소 ▲심리학자가 제시하는 정신건강 관리법을 안내하고 신청자들로부터 사전질의 받은 정신건강에 대해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강의는 안산시민 누구나 무료로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 또는 홈페이지, 신청링크를 통해 사전접수 받으며, 접수자에게는 행사 초대장이 링크로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강좌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많은 시민이 위로받으며 심리적 면역력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안산시 단원보건소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LIVE 이수정교수의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범죄심리학자가 본 “코로나19와 정신건강” 그것이 알고싶다

2021. 4.23(금) PM 7:30

전화 또는 홈페이지 무료사전접수 (+사전신청자 접속 링크 발송)

☎ 031)411-7573

이수정 교수
범죄심리학자, 경기대학교 교수
그것이 알고싶다, 유위즈 등 TV 출연

파주시, 국토교통부 2021 공간환경전략계획 공모선정

파주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2021년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3,300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 3월, 공모에 신청해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것으로, 파주시는 2019~2021년 3년 연속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해당 공모사업은 파주시의 공간환경전략계획의 중점추진권역을 추가설정 하는 수립용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오는 4월 14일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착수워크숍을 시작으로 6월에는 총 사업비 2022년 4월 완료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지난 2019년에 국토교통부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예산 지원 및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20년에는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연속사업에 지원 및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기 수립된 공간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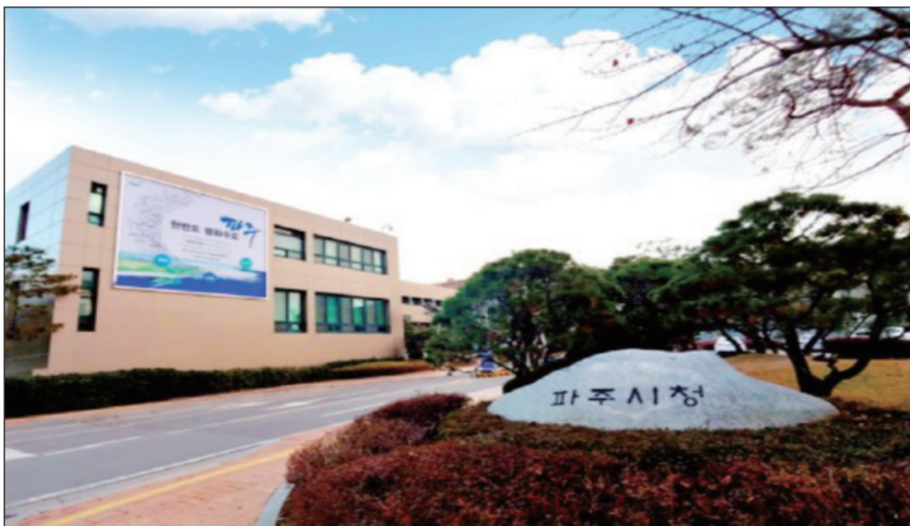
전략계획의 파주시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중점추진권역을 추가 설정하는 공모로, 경의선·동일로 축 인근 도심지를 중점추진권역으로 공모에 신청해 선정됐다.

공간환경전략계획은 각 부처에서 단일사업으로 추진 또는 계획하는 공공사업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안과 이를 위한 필요사업들을 발굴하는 계획을 수립하므로 '경의선·동일로 축'의 활력제고와

원도심 등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시는 6월 까지 관련 과업 및 방향성을 담아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3년 연속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것은 파주시의 공공건축 고도화에 대한 고간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건축 고도화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화성시농업기술센터, 벼 키다리병 방제 위해 종자소독 중점 점검 지도

화성시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벼농사 못자리 철을 맞아 지난 6일부터 시작해 오는 19일까지 2주간 키다리병 방제를 위한 벼씨 소독 중점 지도를 펼친다.

기초에 대다수 품종들이 소독 처리된 상태로 필요시에만 살충제를 첨가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전체 종자의 43.4%, 내년부터는 모든 종자가 미소독 상태로 보급됨에 따라 종자전염병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팀별 담당을 편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올바른 종자소독과 못자리 설치를 통해 고품질 쌀 생산을 도울 계획이다. 종자 소독은 전용 약제를 사용해 30℃ 물에 48시간 담귀 소독해야 하며, 친환경재배의 경우 60℃ 물에 10분 소독 후 10분간 냉수처리 하면 된다.

이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키다리병은 종자소독을 통해 90% 이상 방제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소독 및 방제로 농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영양군 YEONGYANG-GUN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으로 오세요

김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IDA INTERNATIONAL DARK SKY ASSOCIATION

영양군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도,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참벽공원, 촉백수림, 외씨바선길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로부터 감사장받아 광양향교, 전교 이·취임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12일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지역사회교육운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교육, 문화 예술 등)을 운영·후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코로나19로 인하여 KACE안양과천에서는 여러 사업을 대면·비대면을 병행하여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이날 정상진 회장은 조광희 의원에게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의회 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열정을 보인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전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지정평생학습관프로그램,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경기도 성평등기금지원사업, 안양시 시민인성지원사업

약, 안양시 특성화 프로그램지원사업 등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의회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 펼쳐왔다. 감사장을 받은 조 의원은 “아름다운 변화를 꿈꾸며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광양향교 전교 이·취임식이 지난 9일 오전 10시 광양향교 유림회관에서 열려 제56대 김서현 전교가 이임하고 제57대 조현동 전교가 취임했다. 제57대 조현동 광양향교 전교는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육자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했으며, 공공에 대한 모범을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을 수훈하는 등 일생을 공익 실현에 앞장섰다. 조현동 신임 전교는 취임사에서

본받아 이를 후대에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유림대학의 활성화와 청소년 인성교육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광양향교는 1398년 창건된 이래 광양시 유교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백운산 고로쇠약수제, 춘·추기 석전대제, 봉양사 제례, 유림대학, 기로연 등을 개최하며 전통 문화 보급에 기여하고 있다. 조기석/기자



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열어 조덕형((주)덕성그린텍) 신임회장 취임

(사)인천시 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는 지난 9일 부평우림라이온스클럽에서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박술목 중소기업협의회 회장, 조덕형 중소기업협의회 신임회장 등 회원들과 함께 '2021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개식선언 후 이·취임사, 축사, 공로패 전달 등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만찬 순서 없이 간소하게 실시됐다. 박술목 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 전임회장은 “지난 2년의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준 회원들의 사랑과 응원에 감사하다”며 “상임운영위원회와 집행부에도 고맙다”고 말했다. 새로 취임한 8대 조덕형 회장은 “가까이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비전으로, 인천 향토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

하도록 부평경제, 나아가 인천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협의회 발전을 위해 갖은일을 마다하지 않은 박술목 전임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회원사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합쳐 꿈이 현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준택 구정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협의회 발전에 노력한 박술목 전임회장과 함께 감사하고, 신임 조덕형 회장의 취임과 상임단 구성을 축하한다”며 “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는 기업간 상호교류를 통해 부평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힘이 되고 있기에 구에서도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10월 창립한 사단법인 인천시 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는

지역경제 현황 파악 및 정책건의, 기업간 경영정보 공유 및 정보교류,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 기업인 사회공헌 활동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 경제단체이다. 변재현/기자



광주광역시, 신규 소방공무원 16명 임명장 수여

광주광역시는 12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시장, 최민철 소방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공무원 임용식을 열고 신규 소방공무원 16명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소방공무원들은 지난해 신규채용 시험에 합격한 뒤 지난 1월11일부터 12주간 광주 소방학교에서 기초 소방훈련과 공식 소양업무 등 현장실무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이들은 앞으로 각 소방서 119안전센터 및 구급대 등 일선에 배치돼 광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이용섭 시장은 “소방공무원에 신규 임용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소방공무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덕윤/기자



고성군 최금용 고성읍 남내마을 전 이장, 공로패 수여

고성읍은 4월 9일 오전 제7회 고성읍 이장회의와 함께 남내마을 이장 이·취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남내마을 신임이장으로 김진곤 이장님을 임명했으며, 49년 간 남내마을 이장직을 수행하고 퇴임하는 최금용 전 이장에 대한 공로패를 전달했다. 최금용 전 남내이장은 1972년 3월을 시작으로 49년간 마을의 발전과 주민들의 일상을 구석구석 살뜰히 챙겨왔으며 고성군 최장수 이장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올해 3월 31일자로 오랜 이장생활의 마침표를 찍었다. 또한 34년간 고성군 아동위원으로

활동해왔으며 2018년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재난구호성금 기탁, 2020년 재난지원금 기탁 등 소외된 이웃의 어려움을 꾸준히 함께 나누어 지역사회 의 귀감이 되어왔다. 이에 백두현 고성군수는 오랜 기간 지역발전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해 온 최금용 전 이장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이·취임식에 참석해 공로패를 전달했다. 백 군수는 “49년 반평생을 주민을 위한 봉사에 헌신해주신 고마움 잊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고성군을 만들어 가는데 변함없는 관심과 활동 부탁드립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강영훈/기자

다. 이어 고성읍행정복지센터 직원들도 꽃다발과 감사의 선물을, 고성읍 이장협의회를 대표하여 조광복 회장이 퇴임 격려금을, 이재열 고성읍농업협동조합장이 기념품을 전달했다. 최금용 전 이장은 “많은 분들이 떠나가는 저를 이렇게 축하해주시니 그간 49년이라는 긴 시간이 더욱 보람으로 다가온다”며 “이제는 이장의 신분을 떠나지만 한 사람의 고성군민으로 돌아가 고성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강영훈/기자

동두천시, CCTV관제센터 관제요원 동두천경찰서장 표창장 받아

동두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 중 절도범을 검거에 기여한 관제요원에게 지난 12일 양승호 동두천경찰서장이 표창장을 수여했다. 관제요원 정 모 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0시 5분경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 중에 동두천중앙역 자전거보관소에서 자전거 절취 시도를 방범용 CCTV로 식별하고, 비상벨시스템을 활용하여 경고방송을 실시한 후, 시간되지 않은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는 피의자를 신속히 112상황실

에 신고하여, 동광로 80번길 59 인근 노상에서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이 뿐 아니라,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은 2013년 12월 개소 이후 매년 실시간 관제로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크게 기여해왔고, 상황 발생 시 집중 관제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CCTV통합관제센터가 365일 24시간 실시간 범죄검거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관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안전한 동두천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4월 12일(월)부터 4월 21일(수)까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을 신청하세요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가 신청대상



고용노동부는 4월 12일 9시부터 4월 21일 18시까지 신청 누리집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은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며,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6월 초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4월 15일 9시부터 4월 21일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입장이 제한되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활용해야 한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4월 5일에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 총 65만 명에게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지급을 완료했다.

최광수/기자

한수원, 경주에 1,000억원 규모 수소연료전지발전 투자

2023년까지, 총1,000억원, 20MW 규모 수소연료전지발전 단지 조성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12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대성 경제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조항선 서라벌도시가스(주) 사장, 송기영 회당학원 이사장, 장의 위덕대학교 총장, 지역도의원 및 시의원 등이 참석해 '지역상생형 수소연료전지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총사업비 1,000억원 규모의 '경주 수소연료전지 발전단지'는 경주지역 위덕대학교의 유희부지(7,000㎡)를 활용하여 20MW 규모로 조성되어 20년간 운영한다. 여기서 한해 생산되는 전기는 157GW로, 이는 4인 가구기준 약 4만 8천 세대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업부지를 제공하는 위덕대학교와 에너지분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분야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역 상생형 모델이다.

수소연료전지발전은 천연가스(LNG)에서 수소를 분리해 공기 중에서 수집한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대표적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발전효율이 높고 매연이 없어 서울 마포, 부산 해운대 등 도심에도 건설되어 안전하게 운영 중인 청정에너지 생산시설이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시간이나 자연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발전소 인근 지역에는 약 15억 원 가량의 특별지원금과 매년 3천만 원의 기본지원금이 지원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MOU는 기업과 지역대학 및 지자체단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상생형 발전 모델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기업을 위한 도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우수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대구시 청년상담소, DGB와 함께하는 청년금융교실 운영

청년금융교실 '개미는 뽀뽀, 내 통장 뽀뽀' 금융정보·상담 제공

대구시는 2019년부터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탐색을 돕는 청년상담소(대구중구 국제보상로 541, 대구시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상담소는 DGB사회공헌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청년들에게 금융 강의와 개인별 금융 상담을 제공하는 청년금융교실 참여자를 4월 12일부터 모집·시범 운영한 후 앞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금융교실은 20~30대 청년들의 금융에 대한 이해력 증진과 청년이 올바른 금융의 주체로서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DGB사회공헌재단, 대구시, 대구시 청년센터가 함께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자산관리, 투자, 보험 등 금융에 관한 정보제공과 함께 DGB직원봉사단(펜토링)이 직접 참여한 청년에게 개인별 맞춤 금융 상담을 제공한다. 4~6월 마지막 주 토요일(4.24, 5.29, 6.26)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3회에 걸쳐 청년상담소에서 운영하며, 총 45명(회차별 15명 정도) 선착순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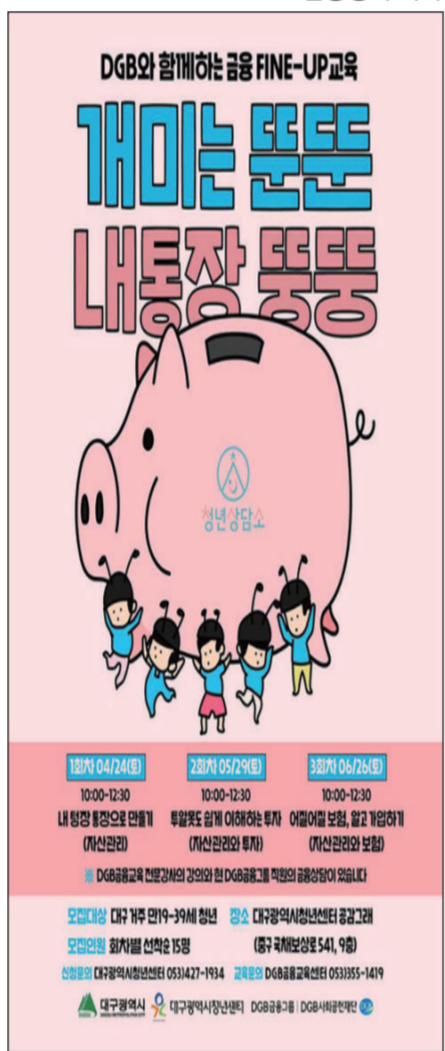
대구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4월 12일부터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줍프'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1 상담뿐만 아니라 소규모로 모여서 진행하는 진로토크도 3월을 시작으로 총 25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들의 진로설정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종사자, 창업가 등)를 초청해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현장에서 직접 묻고 답하며 소통한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민·관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청년희망공동체 대구' 차원에서 크고 작은 협업사례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남궁영기/기자



경북도, 코로나 매출감소 농가... 바우처 100만원 지급

4월 12일 ~ 4월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읍면동사무소 신청

경상북도는 4. 12일 ~ 30일 코로나19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이하 바우처)를 온라인과 읍면동사무소 현장방문을 통해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청 받는 바우처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 체험휴양마을 5개 분야 2천7백여 농가(마을)가 대상이다.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요건을 심사후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도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4. 12일 ~ 30일까지 바우처 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4. 14일 ~ 30일까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5. 14일부터 가까운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선불

카드(100만원)를 수령할 수 있고, 9. 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마을은 5. 14일 ~ 23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의신청은 바우처 누리집 내 게시판 또는 기존에 신청했던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바우처를 수령한 자는 유사 재난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며, 중복 불가능한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해수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이다.

다만, 소규모 농·어·임가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30만원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고, 중복 또는 거짓·위법한 방법으로 수급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되거나

재제부가금이 5배 부과된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판매부진, 방문객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간 내 대상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류석/대구지



우미건설, '화성 태안3지구 우미린 센트포레' 16일 분양 돌입

분양가 상한제 적용... 수도권 전 지역에서 청약 가능, 사이버 모델하우스 오픈

4월 26일(월) 특별공급, 27일(화) 1순위, 28일(수) 2순위 접수

우미건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화성 '태안3지구 우미린 센트포레'를 오는 16일(금)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화성 태안3지구 우미린 센트포레'는 경기도 화성시 태안3지구에 위치하며 지하 1층 지상 15층 전용 면적 84㎡ 단일 구성이다. 2개의 단지로 구성됐으며 B1블록 650가구, B2블록 650가구, 총 1300가구가 분양된다.

'화성 태안3지구 우미린 센트포레'는 대규모 택지지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수도권 전 지역에서 청약 및 당첨이 가능하다. 청약일정은 4월 26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화) 1순위, 28일(수) 2순위 청약 접수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B1블록(5/4(화)), B2블록(5/6(목))이며, 정당계약은 B1블록(5월 17일(월)~20일(목)), B2블록(5월 21일(금)~24일(월))까지 진행된다

'화성 태안3지구 우미린 센트포레'는 대규모 자연환경과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단지 주변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용건릉과 국가지정문화재인 용주사가 잘 정비돼 있다. 지구 내 조성 예정인 약 44만㎡ 규모의 공원과 호수공원 등과도 가깝다.

특히 가까이 수원텔타플렉스(수원일반산업단지), 가장일반산업단지, 세마일반산업단지 등이 위치해 직주근접 생활이 가능하다. 병점복합타운, 홍익대학교4차산업혁명캠퍼스 등도 예정돼 있다.

교통으로는 1호선 병점역이 근처에 있고 효행로, 봉명로, 서부로 등을 이용하면 동탄의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쉽다. 오산~화성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예정), 오산용인고속도로(예정) 등 주변 광역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화성 태안3지구 우미린 센트포레는 남향 위주로 배치(일부 세대)됐고, 판상형 4베이 위주로 설계돼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지상에는 주차공간이 없어(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제외) 안전한 보행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다목적 실내체육관(하프코트), 피트니스 클럽, 실내골프연습장 등의 커뮤니티시설이 설치되며 통학차량 하차공간과 연계된 카페린, 남녀구분 독서실, 작은 도서관과 같은 특화 시설도 계획돼 있다. 미세먼지의 효율적인 저감 및 관리가 가능한 에어클린(AirClynn) 시스템도 설치된다.

건본주택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오픈하며 실제 견본 주택은 당첨자에 한해 입장 가능하다.

문의: 031) 266-1800

김남주/기자

김남주/기자



화성 태안지구3지구우미린 센트포레